

|| 성도의 교제 ||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 환영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시고, 신앙 생활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알림

1. 오늘 실만한물가교회 맥추 감사 주일 예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 2025 년에 온 성도님들이 함께 잃은 양 찾기 운동에 참여합니다.

실천사항 1: 잃은 양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실천사항 2: 잃은 양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합니다.

3. 온라인 새벽 예배가 진행 중입니다. 매주 수, 목, 금 오전 6 시 YouTube (신명기)

4. 토요 전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5. 롱렉 여름 선교: 롱렉 여름 선교가 8 월 4-12 일(8 박 9 일)의 일정으로 꿈나무 선교회에서 진행합니다. 선교 헌금으로 함께 동참해 주세요.

6. 요한일서 2 장 25 절 (2025 년 7 월 성경 암송 구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7. 실만한 물가 교회 헌금 안내입니다.

Cheque Pay to: The Refreshing Church

E-Transfer: rwgchurch@outlook.com

○ 실만한물가교회 연락처

E-mail: rwgchurch@outlook.com

Homepage: rwgchurch.ca

Tel.: 647-989-2546

Address: 2630 Inlake Court, Mississauga, ON L5N 2A7

실만한 물가 교회 QR Code Scan

홈페이지



YouTube 채널



목요성경공부



카카오톡 채널



대한예수교장로회
실만한물가교회
The Refreshing Watered Garden Church

맥추 감사 주일 예배

오후 1:30

인도: 김윤규 목사

목도 Choral Prelude

다함께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기원 Invocation

인도자

*찬송 Hymn

28 장 (통 28)

다함께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다함께

*교독문 Responsive Reading

105. 감사절 (1)

다함께

찬양과 경배 Praise and Worship

304 / 305 장

다함께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봉헌 및 기도 Offering & Prayer

213 장 (통 348)

다함께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시편(Psalm) 32:1, 5-6 (p. 824)

인도자

설교 Sermon

김윤규 목사

감사는 죄 용서함에서 시작됩니다

Thanksgiving flows from forgiveness

*찬 송 Hymn

310 장 (410)

다함께

*축 도 Benediction

김윤규 목사

*는 일어섭니다

초대 교회의 신앙으로 세워가는 교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롬 5: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오늘 설교에서 함께 읽는 성경 구절입니다.

시편 118:1 (구약 p. 889)

사무엘하 12 장 1-7 절 (구약 p. 479)

시편 51 편 (구약 p.839)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1.

2.

3.

다윗은 시편 23 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들을 푸른 풀밭과 실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푸른 풀밭과 실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언약의 백성들을 지켜 주시는 상징입니다. 신명기 29 장 23 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관계가 파기 되었을 때에 그 땅에 아무 풀도 자라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셔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윗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실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 만한 물가'라는 히브리어 명사는 '메누하흐'(menuhah)인데 기본적인 뜻은 '실 만한 장소'(resting-place) 또는 '침'(rest)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 만한 물가'라는 히브리어 명사 '메누하흐'가 어디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단어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로 '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누아흐'(nuah)라는 동사에서 파생이 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누아흐'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노아'(Noah)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라멕이 백팔십이 세에 낳은 노아의 이름이 '안위'(安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창 5:29), 노아는 홍수 가운데에서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침을 허락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도 모세는 자신의 장인 호밥(Hobab)에게 부탁을 하여서 삼일 길을 걷고 실 곳을 찾았다고 민수기 10 장 33 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실 곳이 '메누하흐'로 실 만한 장소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를 바쁘게 살다 보면,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있고, 집이 우리들의 실 만한 장소가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영혼도 실 곳을 찾아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바람 부는 길 위에서 혼자 서 있는 느낌이 들 때에, 세상 어디에서도 기댈 곳이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초청하십니다.

(마 11: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